

술값 인상에 '소+맥' 세트 1만5천원?...서민 입맛 "쓰다 써"

하이틴로, 9일부터 참이슬 6.95%·테라 6.8% 올리기로 오비맥주, 카스·한맥 6.9% 인상...소맥가 큰 폭으로 오를 듯

“요즘처럼 삶이 팍팍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 애환 달래줄 소주, 맥주 가격이 또 오르다니요.”

지난해 주류업계가 소주와 맥주 출고가를 3~6년 만에 일제히 인상한 데 이어 최근 또 다시 줄인 상 조정이 보이고 있다.

원재료와 부자재 가격, 물류비, 인건비 등이 계속 오르는 데다, 주세가 작년보다 오르면서 주류업계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처럼 소주와 맥주 출고가격이 오르게 되면 음식점 등에서 파는 술값은 더 큰 폭으로 인상된다는 점에서 소주·맥주 한 병에 6000~7000원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하이틴로는 오는 9일부터 소주와 맥주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국내 주류시장에서 높은 소주 판매율 및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소주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날’ 출고가는 6.95%가 오르게 된다.

인상 대상은 360ml 병 제품과 1.8ℓ 미만 페트류 제품으로, 담금주 등에 쓰이는 1.8ℓ 이상의 페트류 제품과 일품진로 가격은 현재 가격 그대로 유지된다.

하이틴로 관계자는 “연초부터 소주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6% 인상됐고 병 가격은 21.6% 오르는 등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제조경비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면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발맞추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틴로가 소주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은 작년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이밖에 하이틴로에서 생산하는 테라와 켈리 등 맥주 제품의 출고가 역시 9일부터 평균 6.8% 오른다.

지난 4월 출시해 국내 주류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켈리는 출시 반년 만에 가격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오비맥주 역시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오비맥주는 지난 11일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격을 평균 6.9% 인상했다.

환율 불안이 지속하는 가운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각종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제품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오비맥주 측의 설명이었다.

이처럼 국내 주류시장에서 소주와 맥주 점유율이 높은 하이틴로와 오비맥주가 가격을 올리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연말을 앞두고 각종 모임 등 주류 소비가 증가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류업계의 가격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주류업계가 소주나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80~90원만 올려도,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는 500~1000원이 더 올라 경기침체 속 서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점에서 먹는 ‘소맥’(소주+맥주) 가격이 1만원을 훌쩍 넘어설 수 있

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외식산업연구원 이 일반음식점 외식업주 130명을 조사한 결과 55.4%가 소주 출고가 인상에 따라 소주 판매가격을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이미 올린 업주들은 병당 500~1000원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광주지역 식당가에서 판매되는 소주의 가격은 지난해 4000원대에서 올해는 5000원대에 형성된 게 보편적이다. 이번 출고가 인상으로 앞으로 소주와 맥주 한 병에 6000원은 물론, 7000원에 판매하는 음식점들도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광주의 한 음식점 사장은 “원재료 부담이 늘었지만 음식값을 올리면 그나마 소비침체로 줄어든 손님이 더 끊길 수 있다”며 “주류 출고가가 오르면 다른 원가 부담까지 반영해 술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효성 ‘요요 마 첼로 리사이틀’ 공연 후원

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효성 컬처 시리즈’ 7번째 행사 장학금 지급·악기 구입 등 문화·예술·체육·사회적 약자 후원

효성은 오는 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효성 컬처 시리즈’의 7번째 행사로 ‘효성과 함께하는 요요 마 첼로 리사이틀’ 공연을 후원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효성 컬처 시리즈’는 효성 나눔 봉사단장으로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나눔 활동을 지속해온 조현상 부회장이 오랜 인연이 있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 마와 함께 시작해 문화, 예술, 체육 분야와 사회적 약자를 후원하는 프로젝트다.

조현상 부회장은 2009년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악과 예술에 대한 꿈을 잃지 않도록 요요 마에게 티칭 클래스를 제안했고, 요요 마가 이를 흔쾌히 수락하며 시작됐다.

효성은 2010년부터 ‘부산의 집 오케스트라’, 발달장애 청소년 오케스트라인 ‘은누리사랑밴드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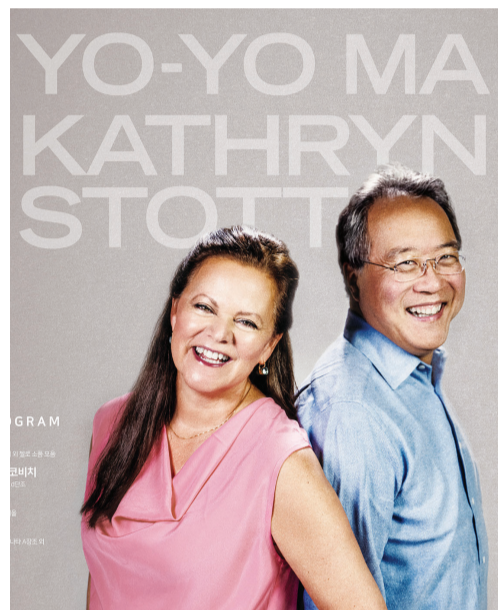
케스트라’ 등을 대상으로 티칭 클래스를 후원하며 음악 꿈나무들의 장학금, 악기 구입, 연주회, 음악캠프 운영 등을 지원했다.

또 중앙기독교학교 등 학생들과 가족들을 함께 요요 마 공연에 초대하여 장애인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19년에는 6개 대륙 36개 도시에서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연주하는 요요 마의 ‘바흐 프로젝트’를 후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파주 DMZ 안 도라산역 ‘DMZ 평화음악회’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한편 요요 마는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고 위대한 음악가 중 한 사람으로, 120개가 넘는 음반을 발매하고, 19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연에서 요요 마는 오랜 음악 파트너인 피아니스트 캐서린 스톱트와 함께 포레, 쇼스타코



비치, 파트트 등 거장들의 작품을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노란우산’ 더 넓어진다

소상공인 회생·파산 때도 무이자 대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을 가입자가 회생 및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로 확대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그동안 시행한 일반대출(부금내 대출, 연 3.9%의 이율, 분기별 변동금리)과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질병·상해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무이자 대출)에 더해 무이자 회생·파산대출까지 시행하게 된다.

회생 및 파산대출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2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부금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무이자 회생·파산대출 외에도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으로 극복을 위해 기업은행과 4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협약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의 자금예탁을 통해 기업은행이 시중금

리보다 감면된 금리(0.9~1.25%포인트 감면)로 대출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출 이용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장기가입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혜택 부여, 재가입장려금 지원, 정책보험 가입 시 바우처 지원, 휴양시설 확대, 가입 소상공인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복지카드 도입 등 다양한 과제가 향후 추진될 예정이다.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금번 회생·파산대출이 회생 결정 및 파산 선고로 사실상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애 전주기에 걸쳐 든든한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8월 실질임금 333만원 ‘6개월째 하락’

1~8월 물가 3.7% 오를 때 명목임금 2.1% 상승 그쳐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6개월째 작년 대비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8월 기준 374만2000원으로, 작년 8월(370만2000원) 대비 1.1% 올랐다.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은 397만원, 임시 일용 근로자는 176만2000원으로, 작년 8월보다 각각 1.3%, 2.5% 상승했다.

근로자들의 1~8월 누계 월평균 임금총액도 작년 동기 대비 2.1% 올라 391만6000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7%로, 물가가 임금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물가를 반영한 1~8월 실질임금(353만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줄었다.

8월만 놓고 보면 실질임금이 333만2000원으로, 작년 8월(340만8000원)보다 7만6000원(2.2%) 적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작년 대비 하락세다.

9월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는 1990만7000명으로, 작년 9월 대비 31만명(1.6%)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가 23만4000명(1.4%), 임시 일용 근로자가 7만명(3.6%) 늘었다.

산업별로는 돌봄·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속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가 작년보다 10만4000명(4.7%) 늘어 증가세를 견인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5만5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만3000명) 등도 종사자가 늘었다.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종사자도 2만6000명 늘었다. 반면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작년보다 종사자가 각각 2만1000명, 1만1000명 줄었다.

/연합뉴스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8층 포카시스 매장에서 다양한 크리스마스 소품을 선보이고 있다. 포카시스에서는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오르골과 스노우볼, 식기 등 다양한 소품을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중기 인력난 해소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제’ 활용을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설명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지난 3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에서 지난 9월 25일 시행한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제도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E74 제도 내용과 참여방법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권역 내 사업장 변경지침 등 최근 외국인력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가 이뤄졌다.

‘K-point E74’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이후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제도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하면 외국인은 한국에 오래 근무하며 가족도 초청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숙련기능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비전문취업비자(E9) 근로자가 비자 만료로 귀국할 경우, 중소기업 사업장의 인력 공백 뿐만 아니라 대체 근로자 도입 비용 및 적응 교육 등 부

담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중소기업이 무려 79.2%에 달했고, 제도를 알면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55.5%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경준 회장은 “이번 설명회가 숙련기능인력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어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외국인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고용 허용 인원 확대 등 중소기업 친화적인 외국인력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농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 정밀 분석 ‘맞춤형 안내’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다면 고향 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연말정산 때 농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한 ‘맞춤형 안내’도 제공된다.

올해는 안내 대상이 20~30대 청년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됐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한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할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77.99(-32.56)
↓ 코스닥	736.10(-21.02)
↓ 금리(국고채 3년)	4.085(-0.004)
↓ 환율(USD)	1350.50(-0.40)